

# 殺人書秘話

金 晉 燮

두말 할것없이 冊은 사람에게 有益

한 것이다. 그러나 冊中에는 勿論有

害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極端한 例를 들자면 그 賢明한 知慧를 가지고 죽으려는 사람을 살린 冊도 많이 있겠지만 個中에는 假令 피1례의 『베르케르의 悲哀』같이 自殺을 獎勵한 有名한 傑作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冊의 利害를 論하려는 것이 目的이 아니다. 나는 다만 直接으로 사람을 죽인 두권의 冊의 由來에 對해서 暫時 말할수 있으면 그만이다. 普魯西亞의 품메른 博物館에는 두권의 宏대한 書冊이 秘藏되어 있는데 이 두권의 冊의 重量을 합치면 無慮 百磅을 넘는다 하니 그 冊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는 것을 너네히 짐작할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鐵로 裝釘이 되고 쇠고리까지 달린, 마치 金庫와 같은 古書로 그 中の 한卷은 가장 오래된 聖書의 하나요 또 한卷은 天文學에 關한 書다. 그런데 이 두권의 冊에는 實로 무섭고도 神秘로운 이야기 가 붙어 있으니 卽이 두권의 冊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殺害한

것이다. 여기서 그冊이 사람을 殺害 했다는 말은 勿論 比喩的意味로 사람을 殺害했다는 말이 아니오 그冊은 實로 스스로 直接 한 사람의 貴重한 生命을 빼앗고 만것이니 그 두卷의 冊은 獨逸의 有名한 天文學者요도 數學者인 「요한·슈테프러」(Johann Steffler, 1452-1531)의 被害者였던 것이다.

요한·슈테프러는 말하자면 그가 살던 時代에 있어 數學과 占星術의 權威者로 星辰을 통해서 人間の 運命을 占치는 妙法을 體得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自己自身 그의 妙法을 틀림없는 것이라 해서 鐵石같이 믿고 있었던 것은 勿論이니 그러므로 그가 星運을卜해서 自己가 어느날에 殞命할것까지 豫見함을 잊지 않았을 때 占星術에 確信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조금도 異常할 것이 없었다. 드디어 그 날은 왔다. 自己가 殞命할터인 그날

—— 그는 悠然히 萬卷書籍이 四圍에 堆積된 書齋속에 앉아 다만 죽음의

到來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勿論 틀림없이 勿야 할 것이었다. 그는 緊張된 마음으 로 窓門을 연제까지나 凝視하고 있었다. 그는 果然 무엇인지 灰色의 影子 비슷한 물진이 間或 어른거리는 것을 보는 듯도 하였지만 죽음은 그러나 곧 素朴하게는 날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더 좀 참아 보자』 이와 같이 그는 自己에게 말하면서 早晚間(鎌)과 時計를 차고 눈앞에 歷歷히 나타날터인 죽음을 苦待하고 있었다. 아모리 星運을 고쳐 생각해보아도 少毫나 틀림 가닥은 없었다. 確實히 死亡은 곧 당 到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 나 외야 할 죽음이 생각한 바와 같이 쉽

사리 아니오매 그는 전디다 못해서 앉 았던 椅子를 뒤로 밀었다. 그때다 椅子는 書架를 부더쳐서 두卷의 무겁고 큰 冊이 同時에 밀을 向해서 떨어지 자 그것은 不幸인지 多幸인지 天文學 者의 明哲한 머리를 쳤으니 드디어 그 의 腦髓는 散散히 破碎되고 말았다. 果然 天文學者 요한 슈테프러는 그 의 豫測한 바와 같이 죽을터인 그날에 죽고 만 것이다. 그러나 勿論 요한·슈 테프러는 그 사람인을 설마 冊中에도 何必曰 聖書와 天文學書 이 두卷이 서로 共謀해서 自己에서 既約의 죽음을 가져오는 神秘로운 刑吏가 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생각했으랴!

(九月十一日)

昭和十四年度準備版(增補改訂版)

全鮮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集

二大附錄 別冊・試驗問題模範解答・口頭試問問題と學校案内

四版 堂堂七百餘頁ノ豪華版 定價一圓(送料十八錢) 發行所 朝鮮教育研究會 京城仁寺町一一九 振聲京城四九二番